



## 코스피, 이틀째 연고점

19일 코스피지수가 이틀 연속 연고점을 기록하며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8포인트(0.07%) 오른 2547.42로 장을 마감하며 전날 기록한 증가 기록 연고점(2545.64)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연합뉴스

## 신규 확진자 이틀째 300명대 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격상 검토  
지역발생 확진자 293명 달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5단계로 격상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넘어서며 확산되는 추세다. 정부는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주간 기준 200명을 넘을 경우 거리두기 조치 추가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3명으로 전일보다 증가폭이 30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틀 연속 3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타난 것은 8월 말 이후 처음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293명으로 9일 연속 세자릿수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 107명, 경기 59명 등 수도권에 177명이 감염됐다.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13일 이후 1주일간 하루 평균 138.3명 발생했다. 비수도권 지역 확진자 역시 116명으로, 지난 8월 말 이후 처음으로 100명대를 넘어섰다.

정부는 현재를 코로나19의 대규모 재확산 기로에 선 위태로운 상황으로 진단했다. 이날부터 서울·경기·광주 전역과 강원 일부 지역에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작됐지만,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으면 정부는 곧바로 추가 격상을 검토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경우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00명 정도 돌파하는 게 2단계 기준”이라면서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1.5단계 적용 2주가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리두기 상향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임과 회식을 당분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반장은 “거리두기가 1.5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관련 협회 및 단체, 민간기관까지 회식과 모임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각 부처에서 내리기로 논의했다”며 “약속이나 식사를 동반하는 모임이나 회식 등을 가급적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조원태 손 들어준 것 아냐, 불가피 선택”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간담회  
“경영권 가진측과 협상한 것”

산업은행이 강성부펀드 KCGI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으로 한진칼에 대한 제3자 유상증자가 실패할 경우 차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경영권을 가진측과 협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적극 반박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9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3차 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KCGI)이 한진칼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처분 인용 시 본건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차선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양대 항공사의 경영정상화 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3차연합은 한진칼이 산업은행에 대해 3차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은 현재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측과 3차 연합 측의 경영권 분쟁으로 지분 확보

경쟁이 진행 중이다.

이날 이 회장은 한진칼의 경영권 논란과 관련해 “저 자신은 조원태 회장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조 회장은 사인으로서가 아니라 저희가 협상한 한진칼의 대표로서 참여한 것이지, 주주로서 접촉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거래와 관련해 조 회장 측에 먼저 연락한 것은 산은”이라며 “산업 재편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지 누구의 주선이나 영향력 때문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특히 김석동 전 위원장이 이번 거래에서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며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그는 “김 전 위원장과 고교 동창이 맞고 2004년 금융감독원 재직 시 동료로 일을 하긴 했지만, 이후 만난 기억도 통화한 기억도 없다”고 했다.

그는 또 “한진의 경영권 분쟁의 엔딩을 기다리면 두 회사 모두 망한 다음 항공산업 재편을 한다는 얘기”라며 “여기서 특혜는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항공운수업을 위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혜”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항공운수업 재편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촉구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4년만에 함께 호암 기린 JY 등 삼성 총수일가

## “사업보국 창업이념 계승·발전을”

삼성일가, 33주기 추도식 참석  
이재용, 사장단 50여명과 오찬  
CJ 등 범삼성가는 따로 진행

삼성 총수 일가가 오랜만에 호암 이병철 선대 회장을 함께 기렸다. 이번에도 범 삼성가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9일 오전 10시 40분경 경기도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이병철 회장 33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함께했다. 이견희 회장 별세 후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고(故) 이병철 회장은 삼성 총수 일가족이 추도식 당일에 모두 모인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2017년에는 이 부회장이 수감되면서 참석하지 못했고, 2018년에는 추도식에 앞서 1주일여 전에 먼저 방문해 당일에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지난해에는 이부진 사장이 불참했었다.

이날 일가족은 기아자동차 카니발과 메르세데스-벤츠 스프린터 등 차량에 탑승했다. 이 중 카니발 1대는 차량 커스텀 업체 ‘노블 클라세’ 로고를 장착하고 있었다. 내부를 필요에 따라 꾸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회장은 참배를 마친 후 지난해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기일이자 33기 추도식이 열린 19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호암미술관 옆 선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행 등을 태운 차량 행렬이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와 같이 삼성 계열사 사장단 50여명과 삼성인력개발원 호암관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우선 이 부회장은 사장단에 이견희 회장 장례를 함께 해준데 대한 감사를 전하며, 지난해와 같이 창업 이념을 되새기고 회사 발전에 힘을 쏟자고 당부했다.

“늘 기업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사회에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회장님의 뜻과 선대회장님의 사업보국 창업이념을 계승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도 범삼성가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다. 장손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오전 일찌감치 김희재 여사와 선영을 들렀다. 이병철 선대 회장의 외손자이자 고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3남인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도 오후에 외할아버지를 기렸다. 이병철 선대 회장 딸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외손자 정용진 부회장 및 정유경 총괄사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삼성가는 2012년부터 이병철 선대 회장 추도식을 따로 진행하고 있다. 이재현 CJ 회장이 최근 이견희 회장 장례식에 참석해 고인을 기리는 등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결국 9년만에 범삼성가의 합동 추도식은 불발됐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비대면 유망 창업·벤처기업 1000곳 지원

## 정부합동 ‘K-혁신벤처 프로젝트’

의료·교육·농식품 등 분야 우선실시  
2025년까지 비대면 기업에 9조 투입  
비대면 우대보증, 펀딩도 조성키로

정부가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사회가 비대면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관련 시장 규모도 폭발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돼 육성 대책을 통해 기업들을 적극 키우기 위해서다.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생활소비, 의료 등 지능형건강관리, 물류 및 유통 등의 분야가 대표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20차 비상경제중대본회의에서 비대면 창업·벤처기업을 키우기 위한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비대면 유망 창업·벤처기업 1000개를 발굴해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의료·교육·문화관광·도시주택·물류유통·농식품·해양수산·기반기술 등의 분야에서 우선 실시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1억원의 초기자금을 제공한다.

2025년까지 비대면 창업·벤처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9조원 규모의 자금도 마련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의 겸 제20차 비상경제중대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기술보증기금에서 5조5000억원 규모의 비대면 우대 보증을 제공하고 민간은 3조원 규모의 비대면 분야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5000억원의 정책융자를 제공한다.

비대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사업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들이 화상회의·재택근무·보안 소프트웨어 등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5760억원 규모의 이용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현재 기업 간 거래 중심인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시스템은 향후

일반 소비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기업과 수요자를 연결하는 ‘K-비대면 장터’로 확장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비대면 창업·벤처기업의 신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비대면 신기술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를 비대면 친화적으로 운영한다.

비대면 창업·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캐피탈 펀드’도 조성한다.

중기부는 이같은 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글로벌 수준의 비대면 벤처기업 100개와 비대면 예비유니콘 700개를 육성해 1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